

포항시,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자연·도시 인프라 한번에

오는 2030년까지 추진 박차
도심 내 녹지 면적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계획

포항시가 오는 2030년까지 '도시와 자연이 연결된 쾌적한 정원 속의 도시, Garden City'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으로 지난 해까지 215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도시숲 5개소에서 연간 8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인증받아 탄소 배출 도시에서 상생 도시로 이미지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포항철길숲 조성 이후 사람 중심의 걷는 문화가 형성돼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골목상권에서 연간 4347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하며 건물 신축이 증가하는 등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도도시숲.

▲숲길과 물길이 이어지는 녹색그물망(Green Connector network) 구축 ▲보행 중심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구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회복력 확보를 3대 추진 방향으로 그린웨이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선형녹지 확충과 100만 평 대형 공원(민간 공원 특례사업 207만 3000㎡, 자체공원 136만 2000㎡) 조성으로 도심 내 녹지 면적을 늘

리고, 어디서나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 속의 도시'를 구현한다.

또한 확산전 복원으로 포항철길숲과 동빈나무, 포항운하, 형산강을 연결하고, 포스코대로에 보행자 중심거리를 조성해 사람 중심 순환형 녹지축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천 냉천지역에 방재형 도시숲 2만㎡를 조성하고, 공단배후지역인 해도동 일원 생활권에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력

도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경사 문화재 주변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고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112km 해안둘레길 위편 구간 개체공사와 해변산책로 경관 개선 사업, 맨발걷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삶의 여유와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녹색 매력 도시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방침이다.

아울러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영국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 인증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도시녹화 분야 선진도시와 교류를 이어가며, 녹색도시로 변화하는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탄소배출 도시에서 상생 도시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린웨이 녹지축을 중심으로 숲길을 걸으며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보행 유동 인구를 늘려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장성군

'장성 방문의 해' 공식 표어 확정

장성군이 최근 '2025년 장성 방문의 해' 공식 표어(슬로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총 881건의 응모작이 접수된 가운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 4건, 우수 9건을 최종 선정했다. 의미전달성, 심미성, 대중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

대상에 선정된 '다시 찾는 장성, 2025 설렘의 해'는 '장성 방문의 해'의 추진 목적과 장성관광 활성화 의미를 잘 담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퍼플섬, 韓관광 100선 선정

전남 신안군의 '퍼플섬'이 한국관광 100선에 또다시 선정돼 관광 신안으로써의 이미지를 다져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내에서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2012년부터 국내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번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안 퍼플섬'은 2019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수상했으며,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에 이어 2021~2022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창원시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경남 창원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드론 일상화 사업으로 글로벌 드론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드론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만든다.

드론 일상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은 올해 창원특례시 드론 촬영사진 및 영상 공모전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사천시

대중교통비 환급 '경남패스' 시행

사천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경남패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환급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K-패스를 사용 중인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가 없는 시민들은 가까운 은행 등에서 K-패스 카드 신청을 한 후 K-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전남도, 민선 8기 30兆 투자유치 순항

3년간 27兆 이상 투자유치 이끌어
주력산업, 총 실적 78.5% 차지
역점·신사업 발굴 등 조기달성 박차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30조 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은 결과 지난 3년간 27조 이상 투자유치를 이끌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블록경제에 따른 무역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자수요가 감소한 경제 침체 등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다.

전남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과감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403개와 총 27조 2872억 원의 투자협약을 했다. 2만 161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20조 6920억 원으로 총 실적의 78.5%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투자유치 활동에 차별화된 전략을 접목해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해상풍력 기자재, 데이터센터 등 역점 산업과 전남지역 산업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버스정류소, 맨홀, 안내표지판 적용

부산시는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전체에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공공시설물 3종을 선정해 표준 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

지난해 16개 구·군의 우선순위 수요조사를 거쳐 부산형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용역을 진행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 디자인은 ▲버스 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 총 3종의 공공시설물에 적용한 것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특화형 버스정류소 디자인, 이미지. /부산시

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표준 디자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무분별한 도시 디자인을 지양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 걸맞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마련

93개 사업에 367억 편성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체계적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은 울산 전체 기업 14만 2135개 가운데 13만 5184개로 95.1%를 차지하며, 울산 전체 기업 종사자 40만 8938명 중 18만 8137명으로 46.0%를 차지한다.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시책과 혁신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성공 창업 지원 등 11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93개 사업에 367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통한 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기여를 위해 1730억원의 경영 안정자금 편성에 대출금리의 2.5% 이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이외 납부액의 30% 범위 내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노후화된 점포 환경과 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계약 원가심사 통해 500억 절감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경북도는 2024년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 1조 2804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024년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이 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자문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적 자문으로 공사 현장 내 발주청, 시공사 간의 소통의 역할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

/경북=이성호 기자 leesh0412@